

문학적 체험 형성의 수사적 조건 연구*

-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

김혜영

1. 서론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는 텍스트 생산과 수용의 과정을 소통의 맥락에서 질서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 텍스트, 수용자 상호 간의 실천적 관계들을 재구성하는 소통의 결정 요인과 존재 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데올로기 담지체로서의 언어적 특성 외에도 텍스트가 가진 특정 발화 양식으로 인해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자율적인 의미 생성자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소통의 결정 요인이나 존재 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조건화된 소통에 참여하게 된다.

텍스트는 중립적이고 정태적인 의미 담지체나 부재 요소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대상 혹은 의미의 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수용자의 읽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작용태이다. 이에 따라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텍스트의 조건은 수용자의 체험을 생산해내는 기원이 된다. 특히 생산자와 수용자의 직접적인 교섭을 전제하지 않는 문학 텍스트의 경우, 수용 과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의 특정 발화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텍스트의 발화 양식이 생산하는 가치 체계가 수용자의 반응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적극적으로 수용자의 읽기에 개입하여 수용자를 설득하고자 한다. 씌어진 것으로서의 문학 텍스트가 수용자를 능동적인 소통의 상대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수용자를 설득,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사적 장치 때문이다. 수사학은 일반적인 의미로 화술, 담화의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수사학은 소유권의 소송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¹⁾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능란한 화술'을 통한 변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중이 듣도록 의도된 것이 분명하거나 일반적인 중요성을 지닌 주제나 제목에 관해 광범위한 청중에게 연설하는 사람과 같은 어조나 태도를 가진 모든 문학작품 역시 수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²⁾ 수사의 관심사는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모든 복잡한 일, 화자를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이다. 이러한 수사학이 작가와 그의 독자들의 관계를 확립, 자기 작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유도하는 방편이 되는 모든 기교를 포함³⁾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씌어진 것으로서의 서술성에 집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술성의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는 수용자가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수용자는 자율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를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찾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수용자도 소통의 대

1) R. Barthes, 김성택 역, 『옛날의 수사학』, 김현 편,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92, 22~23면.

2) P. Dixon, 강대건 역, 『수사법』, 서울대출판부, 1987, 8면.

3) 위의 책, 9면.

상이 되는 담화 형식에 의해 구속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텍스트의 수사성 역시 서술성과 마찬가지로 소통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장치임을 알게 된다. 수사성은 텍스트의 담화적인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특정한 원근법적 배치 혹은 비유에 의해 구성된다.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는 수용자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므로, 수용자는 언제나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와의 소통 관계에 들어간다. 수사적 장치로 인해 수용자는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구속된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이 텍스트가 수사적 장치를 통해 수용자의 읽기에 관여하는 방식은 개인의 실재 조건에 대한 개인의 상상적 관계의 표상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작용과 유사하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데 있어서 자명함—우리가 항상 이미 주체라는 사실—과 인지—우리가 주체임을 보증하는 이데올로기적 인지 관습의 실천—를 동원한다.⁴⁾ 이와 마찬가지로 수사적 장치 역시 그 목표를 필연적이거나 개연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데 두지 않고 진실임직함에 입각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데 돕으로써 문화적 보편성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를 특정 발화의 구성체로 호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 수용 과정에 대한 접근은 텍스트적 조건에 의해 호명된 수용자가 특정 주체로 구성되는 양상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읽기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텍스트 수용에 작용하는 역동적인 권력 관계,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의미 구속력과 수용자의 의미 구성력 사이에서 빚어지는 미시적인 힘들의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이해 과정에 작용하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수사적 장치로 알레고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계몽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알레고리의 경우, 다른 수사적 양식에 비해 텍스트적 조건이 수용자를 구속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텍스트의 수사적

4) L. Althusser,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숲, 1991, 102~130면.

조건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알레고리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장용학의 「요한시집」을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 장용학은 알레고리적인 창작 방법을 유지해 온 소수 작가 중 하나로 그의 소설에서 알레고리는 관념적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매개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장용학 소설에 내재해 있는 절대적인 관념 지향성을 가지고 작가와 수용자의 계몽적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⁵⁾ 계몽 도식을 기반으로 한 소설에서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관념을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자의 권위적인 목소리를 동원하기 때문에 서술자와 수용자 사이의 위계 질서는 직접적이고 공고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서술자를 중심으로 수용자와의 소통적 관계를 논의, 소설의 화행 작용을 설명해 온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고는 알레고리의 계몽 구도를 서술자와 수용자의 화행적 관계에서 찾지 않고 텍스트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용자 스스로 계몽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도록 하는 알레고리 자체의 수사적 구조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먼저 수용의 과정을 입론화하기 위해 문학적 체험이라는 범주를 설정, 텍스트의 수용 과정을 분석한다. 유형화된 문학적 체험을 토대로 하여 알레고리적 수사가 수용자를 특정 주체로 구성하는 과정을 규명, 문학적 체험의 텍스트적 조건을 검증한다. 또한 수사적인 장치가 텍스트의 수용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수용자를 향한 텍스트의 구속성을 논리화하는 것에서 비판적 읽기 및 발견적 학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5) 서영채, 「알레고리의 내적 형식과 그 의미-장용학의 『원형의 전설』론」, 『민족문학사연구』 제3호, 1993.

방민호, 「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장용학 김성한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3.

2. 문학적 체험 형성의 전제

텍스트 수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험을 체계화하려는 연구에는 작중 인물의 행동으로부터 문학적 체험의 문제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와 문화적인 맥락이나 담론이 체험 형성에 작용하는 양상을 고려한 논의가 있다. 전자의 논의로서, 최인자⁶⁾는 수용자의 생산적 활동을 동화와 거리두기로 설정한 다음, 작중 인물과 수용자의 거리 조절에 의한 내면화 양상을 고찰한다. 동화와 거리두기는 작중 인물의 삶과 행동 궤적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개념이 된다. 김중신⁷⁾의 논문 역시 문학 텍스트를 심미적 대상으로 보고 읽기 행위를 심미 체험으로 규정, 심미 주체가 텍스트 속에 내재된 서사 주체의 존재나 행위를 자신의 보편적 평균 체험에 비추어 가치 판단하게 되는 계기를 포착한다. 이를 기반으로 서사 주체의 행위와 심미적 체험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보편적인 윤리 의식을 공통 감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문학적 체험의 문제를 유형화할 수 있었지만 작중 인물에 국한하여 문학적 체험의 발생적 준거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히 문학 텍스트의 읽기를 심미 체험이 현상하는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체험의 양상을 미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문학적 체험을 심미성에 직접 연관시킬 경우 현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체험의 질적 측면이 배제되고 선형적인 가치 규정이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체험을 규정하는 문제가 현상과 괴리되는 개념화의 차원에 머물 수 있다.

이에 대한 모색으로서 문학적 체험의 기원을 텍스트 내적 원리나 수용자의 심리적 요인 외에 사회 문화적 맥락에까지 확장시킨 논의가 있다. 문화적인 맥락을 통해 수용의 과정을 분석한 최지현⁸⁾은 한의 정서가 전통적

6) 최인자, 「작중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7) 김중신, 「서사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인 정서로 수용되고 보편적인 정서로 체험되는 과정을 근대시 형성과정에서 일상적 정서가 근대적 삶에 알맞게 분류되고 윤리적 규범의 틀 안에서 심미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과 상응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문화적 합의에 의해 문학적 정서 체험이 형성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된다. 시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에 주목한 정정순⁹⁾ 역시 시적 담론이 역사적 이데올로기성을 반영하고 있음에서 출발, 기표에 각인된 이데올로기성이 하나의 텍스트 전략으로 독자에게 특정한 주체 형식을 부과함을 고찰한다. 나아가 담론의 실현에 의해 구현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을 주체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의 형식으로부터 정서 체험이나 이데올로기성이 비롯됨을 설명하는 이러한 논의는 읽기의 과정을 문화적인 조건 혹은 이데올로기성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봄으로써 문학적 체험의 문제를 문화나 담론에서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적 체험의 기원을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두고,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적 체험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수용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읽었는가에 따라 그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텍스트적 조건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체험은 온갖 느낌이나 감정, 정서와 같은 개인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바를 뜻하며 인식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¹⁰⁾에서 이해의 문제로 전환하여 고찰할 수 있다. 수용자의 이해를 유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라이엘마허의 이론을 들여올 수 있다. 슈라이엘마허의 이해 이론은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와 수용자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해 작용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슈라이엘마허는 수용자 스스로 선이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주목한다. 해석학을 이해의 기술이라고 규정한 슈라이엘마허는 이해를 예감적 이해와 비교적 이해로 구분한다. 예감적 이해는 전적으로 친근성 있

8) 최지현, 『한국 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9) 정정순, 『시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10) G. Warnke, 이한우 역, 『가다머』, 민음사, 1999, 61면.

는 정신을 대상으로 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생생한 감정 이입에서 이해 되어져야 할 사람에 정통해짐에서 유래하는 자발적인 감지를 의미한다. 반면, 비교적 이해는 많은 사태적이고 문법적, 역사적인 지식에 의거하고 발언의 연관성이나 비교에서 의미를 터득하는 것이다. 예감적 이해가 의미의 직접적인 예감이나 파악을 의미한다면 비교적 이해는 다양한 개별적 자료를 통해 매개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¹¹⁾

슈라이엘마허는 서로 상이한 개성들간의 이질성이 해소되려면 누구나 타인의 최소한의 특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며 예감성 역시 자신과의 비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감성과 비교성을 관련시킨다. 그에게 이해의 방법은 비교를 통한 공통적인 것과 예측에 의한 특수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된다. 슈라이엘마허에게 있어서 이질성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감정과 감정 이입 능력이며 예술 생산의 창조적 특성 역시 예술 해석의 창조적 행위에서 공감적이고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본다.¹²⁾ 슈라이엘마허는 모든 이해의 최후 근거를 동질성의 예감적 행위에 두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는 동질성에 이르기 위한 매개로 작용한다.

그러나 슈라이엘마허가 동질성으로의 귀환을 통해 이해를 수렴의 방향을 몰고 간 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예감적 이해와 비교적 이해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대등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슈라이엘마허가 말하는 비교적 이해-대상의 이질성으로 인해 예감적인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이에 대한 모색으로 이질적인 대상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는 행위-를 대상의 다양한 층위의 교섭, 조정을 통해 발산적 이해를 모색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대상의 이질성이라는 것은 비교적 이해가 텍스트에 거리를 두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질적 대상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문제도 두 대상을 적극적으로 상관 짓는 추론의 문제와 결부된다.

알레고리 역시 1차적 의미로부터 2차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11) E. Coreth, 신귀현 역, 『해석학』, 종로서적, 1993, 24면.

12) 고위궁, 『해석학과 문예학』, 나남, 1989, 50~51면.

는 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동질성보다는, 거리를 유지하고 추론의 과정이 동원되는 비교적 이해와 호응관계를 갖고 있다. 비교적 이해는 수용자를 행위의 주체로 끌어들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비교적 이해의 방법은 읽기의 이론을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3. 알레고리의 수사적 메카니즘

문학 텍스트의 체험에 작용하는 텍스트와 수용자의 상호 교섭 양상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수용자를 소환하는 텍스트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이해의 두 가지 양상 중 비교적 이해가 해석을 통해 수용자를 소환하는 구조임을 살펴보았다. 알레고리는 수용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암시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이해와 연관된다.

알레고리의 기원은 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설화 중에서도 시간, 계절, 추수, 출생, 죽음, 결혼 등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신화와 연관된다.¹³⁾ 신화는 모든 사람에게 신의 존재를 말해 주지만 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제한하기 때문에 의미의 파악 및 전달을 소수의 특권층으로 제한한다. 신화에서 신의 존재가 지체를 가진 소수에게만 개시되어 있음으로 해서 신화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제시된 것과 제시되지 않은 것, 분명한 것과 암시된 것 등의 구분을 만들어낸다. 신화를 해석하는 일이란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잠재적으로만 드러난 것을 명시화하는 일이자 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작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알레고리는 말해진 것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의 기술이 된다.

13) J. MacQueen, 송낙헌 역, 『알레고리』, 서울대출판부, 1983, 1~21면.

모든 비유적 표현이 수용자의 해석 행위를 그 구성적 요소로 삼고 있는 것처럼 알레고리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 수용자에 의해 완성된다. 알레고리의 해석은 말해진 것, 제시된 것 혹은 분명한 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 암시된 것을 추론하는 작업이다. 신화나 성서에서 알레고리는 말해지지 않은 부분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비의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해진 것으로부터 암시된 부분을 추론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구성의 준거가 된다. 즉 암시된 의미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레고리가 절대적인 의미의 규정에 초점을 맞출 때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주변과 중심의 가치 평가적인 의미를 갖는다. 초월이 알레고리의 본질적 속성이 되는 이유는 말해지지 않은 부분이 절대적인 의미 규정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을 파편화된 것으로 인식, 의미 내재성의 부재를 선언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알레고리의 기능도 변화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알레고리는 절대적인 의미의 해체를 파편화된 서사의 구성을 통해 보여준다. 파편들의 구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러한 대립과 모순의 강조를 통해 현실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구성 원리가 된다. 또한 알레고리는 파편화된 서사 구성의 기원이 현실의 붕괴를 고발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읽어낼 수 있도록 수사적인 장치를 구사한다. 이에 따라 현대 알레고리의 파편화된 구성 방식 역시 종합하는 행위인 해석을 이끌어 낸다. 알레고리의 해석이 종합하는 행위일 수 있는 이유는 알레고리의 해석이 파편화되고 이질적인 부분을 의미 있는 전체로 읽어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레고리가 수용자에게 작용하는 메카니즘의 두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말해진 것을 통해 말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유도, 말해지지 않은 부분을 해석해 내는 과정이다. 1차적 의미로부터 2차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개별화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알레고리에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른 하나는 알레고리가 수용자의 해석

과정을 통해 도달한 보편적인 의미를 다시 수용자 자신에게 전이시킴으로써 수용자 자신을 해석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이는 수용자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 알레고리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과 해석의 결과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과정은 원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원환 구조야말로 알레고리를 계몽적인 수사로 만드는 동인이라고 하겠다.

이상을 정리하면, 알레고리는 이질적 요소의 나열을 통해 말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를 호명한다. 호명된 수용자는 개별과 보편의 구조에 따라 의미를 해석해 내며, 대상의 전이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을 성찰의 주체로 정착시킨다. 알레고리는 수용자가 암시된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수용자를 해석하고 성찰하는 행위의 주체로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알레고리가 계몽의 수사일 수 있는 이유는 해석 행위의 주체가 해석 결과에 자신을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알레고리의 구조에 있다. 알레고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용자를 행위의 주체로 호명하는 수사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본다.

1) 거리 생성의 구조

알레고리는 1차적 의미에 암시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암시하고 있는 바를 찾도록 유도한다. 암시적 의미를 찾는 구도의 대표적인 예가 비유이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비유에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암시적인 의미를 부여받았지만 망명 정부의 지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론적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낙엽을 표현하는 1차적인 의미 체계가 ‘쓸쓸하다’ ‘인생의 허무함’ 등이라면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는 그러한 1차적인 의미 체계를 넘어선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가 1차적인 의미 체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보편적 기준으로 볼 때 낙엽과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가 결합이 이질적이라는 데 있다.

낙엽과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의 결합을 일상적인 언어 사용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인식하는 그 지점에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에 대한 메타 언어적인 접근이 시도된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기호가 표상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2차적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1차적 의미가 표상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이질적인 결합으로 인해 텍스트가 제시하는 바가 수용자의 기대와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2차적 의미에 대한 해석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알레고리는 수용자가 1차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2차적 의미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의미 결합의 자의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취한다.

알레고리란 1차적 의미 체계의 해체를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알레고리는 파편화된 부분의 결합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이질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현상의 나열을 통해 보편적인 의미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레고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관념과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인 해석이 요구된다. 개별로부터 보편 관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보편적인 것 속에 개별적인 것이 존재함을 전제하게 된다. 알레고리의 개별과 보편의 구조가 부분과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차적 의미를 추론하도록 만드는 알레고리의 수사적 구조인 이질성의 결합이 「요한시집」에서는 파편화된 부분의 병치와 중첩, 부분의 극대화 등으로 나타난다. 「요한시집」은 부분이 의미 있는 전체로 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들이 무의미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요한시집」 서두의 우화의 세계는 사적인 진술 형태를 띠고 있는 소설의 세계, 그리고 제목이 암시하는 시적인 세계와 병치된다. 교훈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우화의 방향성과 의미 내재성의 결여를 구현하는 소설의 지향성, 존재와 의미의 화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담고 있는 시적인 추구는 통

합할 수 없는 이질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부분이 병치됨으로 인해 수용자는 파편화된 관계의 연관성을 탐색하게 된다.

양식의 병치 외에도 「요한시집」은 이분법적 대립의 해체와 이미지의 중첩 등의 파편화된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요한시집」에는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구축된 기반이 무엇인가를 밝힘과 동시에 그러한 구분을 해체함으로써 위계적 질서의 층위를 전복시킨다. 예를 들어, 문을 밀 것인가/당길 것인가의 사소한 경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누헤의 눈알을 들고 서 있는 안의 세계와 감시병이 노래하는 밖의 세계를 대비시킨다. 땅의 끝과 시작, 온 시간과 올 시간의 매듭,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 위치가 빚어내는 시간, 만들어내는 것과 죽이는 것 등의 단절된 두 세계가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 두 개의 세계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 둘 중 하나의 세계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를 선택하면서 다른 세계와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해 들어가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빚어내는 비극적인 현상을 비판한다. 이분법적인 경계가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의성이 인식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서 각각의 대상을 구분하는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대상의 자기 정체성을 분열시킨다. 이미지의 중첩 작용은 대상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 외에 다른 대상과의 중첩된 관계에서 생성된 의미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요한시집」에는 ‘나’와 누헤, 요한과 누헤, 누헤와 누에, 누헤의 손과 노파의 손, 눈 먼 도승과 고양이의 눈, 누헤의 눈 등의 이미지가 병치되면서 중첩된다. 이러한 병치와 중첩의 구조로 인해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질적인 존재의 경계가 넘나들도록 만드는 구성 방식은 병치된 관계의 상관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도록 한다.

「요한시집」에서는 개념 역시 중첩된 의미로 사용된다. 자유의 개념은 ‘무거움’ ‘설레임’ ‘다른 섬에의 길’ ‘다른 포로 수용소에의 문’ ‘진실로 뒤에 올 진자(眞者)를 위해 길에서 외치는 예언자’ ‘그 신발끈을 매어주고 칼에 맞아 길에 쓰러진 요한’ 등으로 정의된다. 귀향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간

다는 의미와 누혜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섬 역시 누혜가 내가 머물렀던 포로 수용소이자 포로 수용소가 위치한 장소, 그리고 노파의 방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눈은 눈이 먼 도승에서 고양이의 눈으로, 그리고 누혜의 눈으로 중첩된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의미 작용이 중첩됨으로 인해 그러한 의미 작용의 메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다.

부분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부분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일관성 있는 구성을 해체, 해체된 각각의 부분이 표상하는 의미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알레고리는 부분의 파편성을 극단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부분이 추구하는 전체를 환기한다. 부분을 극대화하는 누혜의 죽음,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누혜 어머니의 실존 방식에서 드러난다. 누혜의 죽음은 이념의 한계를 죽음으로 돌파해 나갔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누혜는 이념을 극단적으로 추구해 들어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죽음으로써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 누혜가 자유를 위해 자살을 하고 있을 때, 누혜의 어머니는 고양이와 물어다 준 쥐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누혜의 죽음을 전하기 위해 누혜의 집을 찾으면서 이념을 향해 죽어간 인물과 실존을 향해 인간임을 포기한 인물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누혜가 추구해 나간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반면 누혜의 어머니는 인간이 궁극에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혜와 누혜의 어머니 사이에 긴 존재로서 ‘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동물적인 존재 방식을 부정하면서도 누혜와 같은 이념에 대한 지향성도 갖고 있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존재로서 ‘나’는 누혜와 누혜의 어머니가 대립해 있는 영역의 경계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요한시집」에 나타난 파편화된 부분의 병치, 중첩, 극대화 등은 일관된 서사 구조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를 좌절시킨다. 이로 인해 수용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동일화의 기제보다는 텍스트를 해석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암시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기 위해 알레고리는 수용자의 기대를 적극적인 의미 구성의 조건으로 끌어들인다. 수용자의 기대란 텍스트가 기반하고 있는 도식화와 전통성에 기인한다.¹⁴⁾ 도식화와 전통성은 글쓰기와 독서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식화, 전통성과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패러다임은 독자의 기대를 구조화한다. 텍스트가 표상하는 의미 이외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은 수용자가 지닌 기대의 불일치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텍스트와 수용자의 소통 상황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서이다.

2) 대상의 전이 가능성

텍스트의 세계를 삶의 세계로 되돌리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구성을 수용자의 재구성파 결속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텍스트는 읽기를 통해 재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텍스트를 매개로 자신을 이해한다.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적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적용의 단계에서 알레고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는 수용자 자신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는 수용자가 해석의 과정을 통해 도달한 보편적인 의미가 수용자 자신을 반영하는 구조일 때 가능하다. 알레고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관념의 세계는 수용자를 성찰하도록 만드는 성찰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알레고리가 해석 결과를 가지고 수용자를 성찰의 주체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알레고리의 토대가 대상의 전이 가능성에 있기 때문이다.

14)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선형적인 시간 규정인 도식은 지적인 동시에 직관적인 종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오성과 직관을 연결한다. 줄거리 구성 역시 스토리의 핵심, 주제, 사상이라고 불렀던 것과 상황, 성격, 삽화, 결말을 이루는 운명의 변화에 대한 직관적 제시 사이에서 혼합된 이해 가능성을 낳는다는 점에서 도식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식성은 전통의 특성을 갖는 스토리를 통해 구성되며, 전통은 혁신과 침전의 유희에 근거하고 있다. P. Ricoeur, 김한식 외 역, 『시간과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154~158면.

전이 가능성은 알레고리 텍스트의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의 전이 가능성이란 현실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표층적인 국면에서든 아니면 보다 심층적인 국면에서든 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표층적인 국면에서의 변화가 공시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심층적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통한 통시적인 변화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솝 우화에 나타난 알레고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전이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담긴 계몽적인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심층적인 국면의 전이 가능성에 기반한 알레고리의 경우에는 알레고리의 본질인 초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월 개념은 알레고리가 본래 세계나 인간의 삶에 내재하는 의미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사임을 드러낸다. 심층적인 국면에서는 물질적 세계에 속하는 것들을 필연적인 파멸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상적 삶에서의 의미가 제거되고 세계는 소외, 황폐의 이미지를 갖는다. 이처럼 알레고리가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 없이 절대적인 신의 초월 및 신의 부재로 인한 현실의 황폐함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것과 ~에 불과한 것 사이의 구분을 해체했기 때문이다.¹⁵⁾

알레고리는 순수한 것과 ~에 불과한 것이 전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다. 궁극적인 실체조차도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 전이 가능성에 근거할 때 중심과 주변, 순수한 것과 ~에 불과한 것의 구분은 무의하다. 이에 따라 전이의 구조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위계적 질서의 전복을 가져온다. 대상이 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의 배후에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의 붕괴가 작용하고 있다.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관념에, 보편적인 관념의 세계를 다시 개별적인 인간에게 투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알레고리에서 대상의

15) S. Melville, 김용희 역, 『형식주의를 넘어 : 마이클 프리드의 비평을 비판한다』, 『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 시각과 언어, 1995, 215면.

전이 가능성은 개별과 보편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운용하는 원리가 된다. 중요한 점은 알레고리가 텍스트 내적 구성 원리인 전이 가능성을 텍스트 외적인 관계-수용자와의 관계-로 확장하여 수용자를 전이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알레고리는 해석 주체로 수용자를 호명, 수용자를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로 만든다. 의미 구성 주체로서의 수용자는 의미 작용의 권력을 자신이 소유함으로써 해석 활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지만 알레고리의 전이 가능성이 수용자에게 투영되면서 의미 구성 주체로서의 수용자는 자신이 구성한 의미의 대상으로 전이된다.

수용자가 스스로 구성한 문제에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인식의 구조 때문에 알레고리는 계몽의 수사가 될 수 있다. 계몽이란 이전과의 차이를 가치 담보적인 것으로 구성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인식의 확장을 매개로 하여 자립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계몽의 구조가 이전의 단계를 부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계몽의 구조와 알레고리 사이의 친연성을 고려하게 한다. 전이의 구조 역시 자기 반영성에 의해 일치된 세계를 거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이후에 올 것에 의해 부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수사적 조건과 발견적 독해

텍스트의 소통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수용자의 자율적인 읽기를 구속하는 텍스트의 수사적인 장치이다. 이 수사적 장치에 의해 수용자는 특정 주체로 구성된다. 달리 말하면, 수사학적 장치로서의 알레고리는 수용자의 해석 행위를 매개로 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알레고리는 형식 구성적인 범주로서 수용자의 해석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는 알레고리에 의해 해석 주체로 호명된다. 그런데 알레고리는 수용자의 해석 행위에 의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용자를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호명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수용자의 자기 성찰에 뒀으로써 수용자를 다시

계몽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는 알레고리가 수용자를 주체로 구성하는 방식이 이중적임을 말해 준다. 알레고리가 수용자를 능동적인 행위 주체 혹은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알레고리의 의미 생산 준거가 기호의 자의성 및 개별/보편의 변증법에 있기 때문이다. 말해진 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란 기실은 말해진 것으로부터 말해지지 않은 부분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알레고리는 의미 규정의 자의성을 구성 원리로 포함하게 된다. 기호의 자의성은 해석 주체의 권위와 연관된다. 벤야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알레고리는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 주체의 위상에 의존하고 있다.¹⁶⁾ 알레고리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알레고리의 목적은 알레고리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의미를 통해서 해석 주체가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에 있다. 즉 의미 해석의 주체인 수용자를 자기 해석의 주체로 삼아, 해석된 의미를 통해 수용자를 계몽시키려는 데에 알레고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레고리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개별적인 것을 지양해 나가는 운용 방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알레고리는 개별과 보편의 변증법에 의해 유지된다. 알레고리에서 의미 추구의 대상이 되는 보편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

알레고리는 문화 공동체와 같은 보편적인 영역에 호소하기 때문에 해석

16) 알레고리는 기표와 기의가 맺는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알레고리적인 기표인 해골은 허무와 부활이라는 양극단을 지시하고 있다. 해골이 지닌 1차적인 알레고리적 의미는 허무이면서 이는 또한 그 자체로 알레고리로 사용되어 부활을 암시한다. 허무와 부활이라는 극단이 해골이라는 문학적 현상을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매개된다. 비애극에 등장하는 절대악도 그와는 반대로 절대성을 의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비평과 이론』 14호, 한신문화사, 1997, 197~198면.

의 결과로서 보편적 의미는 이미 삶의 공준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알레고리가 의미의 창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원점 회귀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규정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알레고리에서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용자의 문화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용자의 능력은 수용자가 기대고 있는 문화적인 기반으로부터 생성된다.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수용자를 특정 주체로 구성한다는 점을 토대로 텍스트 읽기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비판적 읽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수사적 장치는 수용자의 읽기 행위를 조건화하기 때문에 텍스트 읽기에서 수용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율성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읽기의 패러다임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내에서 기술되는 바를 수용자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며,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향한다.¹⁷⁾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를 해석하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용자의 자율성을 이룬 수업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수용자가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판적 읽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수용자를 향해 발화하고 있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텍스트와 수용자를 연결하는 소통의 층위에 관심을 두려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해석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자율적인 힘의 행사만은 아니며, 텍스트의 수사성에 의한 호명에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응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판적 읽기의 가능성은 수용자가 수사적인 조건에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이를 지양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

17) 김미혜, 「비판적 읽기 교육의 내용 연구-비평 담론의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0.

각한다.

수사적 장치에 의한 비판적 읽기는 발견적 독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공격적 적극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문제의 상반되는 양편에 대하여 설득할 줄 알아야 하는 바, 이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에 있어서 양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이다”라고 논급한다. 곧 수사는 사실을 왜곡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발견적 학습법이 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견해 중 어떤 것이 더 진리에 일치하는가를 보여주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¹⁸⁾

담론 속에 있는 표상성의 함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수사적 독서가 해체 이론의 원천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프루스트 텍스트의 수사적 독서를 통해 드만은 프루스트의 텍스트가 자신이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우연한 관계에 다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⁹⁾ 텍스트의 소통 과정에 작용하는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대한 탐구 역시 능동적인 해석 행위에 구속된 주체의 존재 방식을 규명하여 텍스트 읽기에 내재하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 수사적 조건을 토대로 한 비판적 읽기는 읽기 과정에 작용하는 모순적 상황을 제시하여 수용자가 역동적으로 텍스트와의 소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소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텍스트 읽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사적 조건이 수용자와 텍스트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가의 문제로부터 출발, 수용자에 대한 텍스트의 구속력과 그러한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수용자의 구성력의 교섭 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수용자를 호명하는 장치로서의 수사성에 대한 연구는 영역을 확대하여

18) F. Lentricchia 외, 정정호 외 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268면.

19) P. de Man, *Allegory of Reading :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79, pp.57~78.

수사적 읽기의 방법론과 연계될 때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텍스트 읽기를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소통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문자 텍스트의 경우에는 가장 명백한 소통의 전제가 간과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문자 텍스트가 텍스트의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자 텍스트가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자 텍스트의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문자 텍스트는 수용자의 개입에 의해 채워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자 텍스트 역시 수용자를 향해 있다는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 서술성과 수사성의 구분을 택하였다. 수사성은 문자 텍스트가 수용자를 향해 발화하고 있으며, 그 발화를 통해 수용자를 특정 주체로 호명함을 해명할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한다.

문학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자를 호명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알레고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알레고리는 담론의 표상성을 강조하여 표상성이 지시하는 의미를 찾도록 유도하는데 이처럼 주어진 1차적 의미로부터 2차적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해석의 주체가 된다.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과정은 1차적 의미 연관의 이질성을 통해 암시된 의미를 찾도록 유도, 암시된 의미를 개별과 보편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단계와 해석된 의미로부터 수용자를 반영하는 성찰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알레고리 텍스트는 1차적 의미 체계를 표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수용자를 해석 주체로 구성함과 동시에 해석의 결과에 수용자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를 자기 성찰의 주체로 만든다.

텍스트의 수사성을 전제하면, 수용자와 텍스트의 소통이란 수용자가 텍스트의 호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호명 작용에 어떠한 방

식으로 대응하는가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비판적 읽기 역시 수용자가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갖고 있는 구속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메타적 읽기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적인 읽기는 읽기의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의미 작용,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인식하는 발견적 학습으로 확장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한 발견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 교육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견의 패러다임이 선행해야 한다. 텍스트의 수사성에 주목하는 방식은 읽기에 연루되어 있는 학습자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다. 학습자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이를 보편적인 읽기에 내재한 문제로 논리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고 수용의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대한 탐구는 발견적 교육의 방법이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장용학, 「요한시집」, 『현대문학』, 1955.
- 고위공, 『해석학과 문예학』, 나남, 1989.
-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비평과 이론』 14호, 한신문화사, 1997.
- 김미혜, 「비판적 읽기 교육의 내용 연구-비평 담론의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김영철 편, 『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 형식주의, 맑시즘, 후기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 시각과 언어, 1995.
- 김중신, 「서사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 김현 편,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92.
- 방민호, 「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장용학, 김성한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3.
- 서영채, 「알레고리의 내적 형식과 그 의미-장용학의 『원형의 전설』론」, 『민족문학사연구』 제3호, 1993.
- 정정순, 「시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 최인자, 「작중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 최지현, 「한국 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Althusser, L.,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1991.
- Coreth, E., 신귀현 역, 『해석학』, 종로서적, 1993.
- de Man, P., *Allegory of Reading*,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9.
- Dixon, P., 강대건 역, 『수사법』, 서울대 출판부, 1987.
- Lentricchia, F. 외, 정정호외 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 MacQueen, J., 송낙현 역, 『알레고리』, 서울대 출판부, 1983.
- Ricoeur, P., 김한식 외 역, 『시간과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 Warnke, G., 이한우 역, 『가다머』, 민음사,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Rhetorical Conditions of Forming
Literary Experience
- Around Allegory -

Kim, Hye-young

One of problems that should be premised as a point of view of communication in reading the text is that communication always consist of reciprocal action. Because the literal text being separated with the writer, this is the reason why the above premise is often ignored especially in literal text. The above fact does not mean that literal text has normally passive tendency. In other words the text is not the one that the reader can intervene and fill up. So the method of distinction between the rhetoric and the description has been chosen to carry the point that literal text is toward reader like other communications. The rhetoric is based on excusing the reason that the literal text is uttering toward the reader and with this calling the reader as a certain subject.

The allegory set up as the object in the study to be analyzed in order to look in what method the rhetorical device of the literary text calls the reader. The allegory is used in emphasizing the representativity in discourse ,and it makes the reader find the mean of the representation. So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 reader are inferring the main idea from the first meaning to the second meaning the reader can be the subject to read.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allegory could

be separated in two in stages. One is the stage to make the reader find the implied meaning through finding difference of relation from the first meaning and interpret the implied meaning within the relation with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meaning. The other is the stage of realizing the reflection of the reader from the interpreted meaning. The allegoric text makes the reader the subject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the first meaning representative.

If premising the rhetoric of text, the meaning of the communication of the reader and text should be found from how the reader accept the calling from the text and how they response the action of that. The critical reading can be possible only in meta-reading--Recognizing the power of binding that the text's rhetorical device has, the reader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text--. This metaphorical reading can be enlarged toward the signification related with general reading and better study which is recognizing the ideological control afterwards. When we consider that the text is not a fixed one and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acceptant condition continuously, the study on the rhetorical condition can be founded for better educational method.